

오순절 후 열두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12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3년 8월 20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14 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통일349)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80 번 (고린도후서 4 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고린도후서(2 Corinthians) 12:7-10	한경준 집사
찬 양 Anthem	“평 안”	찬양대
설 교 Sermon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407 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통일 465)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보다는,

마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과 무관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매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후 7:10, 약 1:22)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개혁개정 고후12:9)
“But He said to me,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Therefore I will boast all the more gladly about my weaknesses, so that Christ's power may rest on me.” (NIV 2 Corinthians 12:9)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8/20 (주일)	8/21 (월)	8/22 (화)	8/23 (수)	8/24 (목)	8/25 (금)	8/26 (토)
	삼상12	삼상13	삼상14	삼상15	삼상16	삼상17	삼상18
본문	롬10 렘49	롬11 렘50	롬12 렘51	롬13 렘52	롬14 애1	롬15 애2	롬16 애3
	시26,27	시28,29	시30	시31	시32	시33	시34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8/23수 오후7:30)	“영성의 갈”(1)-“구원의 영상”(히23)
토요 새벽기도회 (8/26토 오전6:30)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시119:57-64)

지난 주일(8/13, 창립기념주일) 말씀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딤후 2:19-21)

디모데후서는 (일명) 목회서신서로 불리는 바울 서신서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시간 동안, 헌신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동역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딤후 2:19)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즉, 아무리 교회를 둘러싼 목회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이단의 그릇된 가르침이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지금도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비석에 새겨진 글귀처럼, 1)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고, 2)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곧 모든 죄악)에서 떠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그리고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를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요, 또한 구원받은 자라면, 불의와 죄악된 것을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어지는) 20 절과 21 절 말씀에서, 어떠한 그릇이 곧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인지? 를 말씀한 내용과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쓰임 받는 기준은 그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상관 없이,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지?” 에 달려 있을 뿐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습관처럼 반복했던 어둠으로부터 이제는 결별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날마다 닦아감으로 인해, 매순간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